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How Can We Live In This Era?*

베드로전서 (1 Peter) 4:7-1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후회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중에는 이미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일까요?

As Christians, God wants us to live wisely in this world. When we stop living wisely, we will someday regret how we lived our lives. Maybe some of us already regret how we have lived our lives. Then what is the secret of wise living?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어리석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길 “세상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즉 “마지막 시대” 라고 합니다.

We can answer that question in many ways. One of them is for us to recognize what type of era we are living in. If we fail to understand what type of era we are living in, our lives will be foolish. That said what type of era is the era that we are living in now? The Bible says tells us that the era of one where,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That would mean that the era is “the end of time.”

영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았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임종할 때였습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후배 목사들의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결국 나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일생동안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It was when Rev. Lloyd Jones was nearing his end. One of the young pastors asked him, “What was the one thing that captivated your imagination in your ministry?” He answered, “It is that someday I will be standing in front of the Holy God.” This is what Rev. Lloyd Jones’ had been thinking throughout his entire life.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 이 사실이 더욱 실감이 납니다. 한해가 지나갔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한해 가까워졌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엄숙하게 하는 것이 없으며,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긴장하게 하는 것이 없을 줄 압니다.

Today's scripture says,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As we approach the arrival of the New Year the scripture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makes us feel as if that were true. The passing of another year means that the day in which we will see our Savior again is drawing nearer. There is nothing that will make us more serious or tense as a Christian then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세에 대한 아주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하여 말세에는 다음 세 가지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eter, through today's scripture reading, gives us very important instructions for the last days. I would like to say that through today's scripture there are three very important things for us to be aware of in the last days.

첫째로,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7 절) 주님은 눅 18:1-8 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즉,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First, please be clear minded and self-controlled so that you can pray. (1 Peter 4:7) Luke 18:18 tells us that during Jesus' preaching He said,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That is to say, it is very hard to find someone who will be praying to God in the last days.

마지막 시대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분주하고 조급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명상을 하면서 한가롭게 산책을 한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The end of everything disturbs our prayers. Many people are too busy to pray. So praying to God and meditating on God's Word has become a very hard thing to do in this intense society.

만나는 사람마다 "바쁘다" 고 합니다.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분주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정신적인 여유도 없이 무엇에 쫓기듯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Many people I have met say that they are busy. They are busy starting from early in the morning to late at night. We have no time to meditate on God's Word and are hunted by time. That's us. That's why it is so very hard to pray.

본문에 나오는 "진지하게" 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건전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깊이 생각하며" 라는 말은 "깨어 술 취하지 않은 것" 을 의미합니다.

In today's scripture, "clear minded" means 'healthy' and 'truthful'. "Self-controlled" means 'not in orgies and drunkenness'.

즉, 말세를 사는 많은 현대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엇인가 미쳐 있으며, 무엇인가에 취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가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먼저 이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기도하기가 어려운 시대" 라는 점입니다.

It is a fact that we who are living in the last days don't keep our faith and are falling into something. This fact prevents us from praying to God. If you want to live wisely in this era, we should know about this era. What we should remember most of all is that this era is a 'very hard to pray' era.

둘째로, 무엇보다 먼저 언제나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8 절) 주님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마 24:10-12 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Secondly,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1 Peter 4:8) Jesus spoke of the last days in the Gospel of Matthew. "At that time many will turn away from faith and will betray and hate each other, and many false prophets will appear and deceive many people. Because of the increase of wickedness, the love of most will grow cold." (Matthew 24:10-12)

사도 바울은 딤후 3:4 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말세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The Apostle Paul warned us in 2 Timothy 3:4 that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be lovers of pleasure rather than lovers of God. Also, the Apostle Peter orders us through today's scripture reading that above all, we should love each other deeply. It reminds us how difficult it is to love each other deeply in the last days.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세운 가정과 교회가 가장 막대한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가 사랑에 실패하면 나 자신이 가장 처참한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기에 문제인 것입니다.

What would happen if we failed to love others while we love God? Our family and our church will be heavily damaged. The point that we should remember is that we, ourselves are a gruesome victim when we fail to love. The problem is that we forget about these things in life.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니 그것을 서로 돕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0 절)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하면서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Thirdly, each of us should use whatever gift he has received to serve others, faithfully administering God's grace in its various forms. (1 Peter 4:10) When he was talking about wisdom for living in the last days, Peter tells us that we should use whatever gifts we receive from God faithfully.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말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에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셨는데,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기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매우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If we think conversely, many don't want to use their gifts from God in the last days. Why is that? Basically, the purpose of that gift being given to us is to serve others. However, people who live in the last days are selfish and love only themselves, so they are mean enough not to serve others and don't want to use their gifts from God.

그리스도인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낭비가 있을까요?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자기의 은사를 그렇게 묻어 둘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Don't you think that it is so wasteful as a Christian to not to use your God-given gift? If we know how foolish it is to not use our God-given gifts and we see that it brings about a terrible outcome, then we cannot hide our gifts anymore. God cannot work through those who do not use their gifts.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악하고 게으른 종” 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God becomes angry with those who do not use their gifts and calls them a 'wicked, lazy servant'. (Matthew 25:26) Since they don't use their gifts, many Christians are living without joy.

새해를 여는 첫 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샌안토니오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at San Antonio/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Sermon by Pastor Daesub Han/한대섭 목사

On the first Lord's Day of the New Year, we have something to decide in front of God. I, as the senior pastor of this church, hope that you can all be clear minded and self-controlled so that you can pray.

우리교회에 필요한 것이 여럿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웃고 즐기고 만나고 먹고 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교회는 단지 한인회나 친교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길 원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There are many things to do for God in this church.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let our minds communicate with God. When people come to church, it's important to laugh, enjoy, meet and eat at church. However, if our thoughts are not eager toward God, our church is nothing more than a Korean community center or a fellowship group. God probably doesn't want the church to be led by people whose focus is not on God.

우리교회는 지금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새해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새로운 한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ur church needs a lot of prayer. We also need those who are prayers. I want to encourage all of you that this year will be a 'Prayer' year. I pray that this year we should meet God and turn our will to God.